

종합유선시범방송 추진경위와 현황

고 수 자 (종합유선방송시범사업단 편성 3부장)

연재목차

- ①세계의 케이블TV의 현황과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
- ②한국통신의 종합유선방송 추진경위와 현황
- ③국내 종합유선시범방송 이용자 성향분석

1. 추진경위

뉴미디어에 의해 새로운 방송통신환경이 조성되어 가는 세계적 추세에 적응하기 위해 정부는 89년 5월 종합유선방송 국내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외국의 선례를 보면 종합유선방송의 기술연구개발은 수용자의 수요창출에 앞서 국가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선행 추진되었기 때문에 상업화로 이전되기 직전에 시범방송으로 최종 검토된다.

이는 종합유선방송시스템이 방송기기, 전송장치, 광 또는 동축케이블, 컴퓨터등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기기작동 및 운영의 기술분야, 영상과 정보통신 서비스분야, 프로그램 제작

분야등 관련산업의 활성화와 고용증대등 산업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전받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의 현실에 맞는 한국적 종합유선방송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본격도입에 앞서 시범방송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91년 상반기부터 일정기간 동안 종합유선 시범방송을 실시, 기술의 타당성, 경제성, 운영상의 문제점, 잠재 수요 파악등 제반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같은 시범사업은 궁극적으로 종합유선방송의 국내 정착을 위한 법적 규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였다.

89년 6월 시범지역 선정 현지조사 조건은 최대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으로 구성된 대규모 집단거주지역, 종합유선방송의 발전전망이 예상되는 지역, 시공상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가급적 근년에 형성된 지역 등이었고, 목동과 상계동 아파트 단지가 이 조건에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되어 이 지역 일만여가구를 가입대상으로 시범방송 시설설계가 동년 12월

체신부에 의해 착수되었다.

앞으로 전국에 도입될 종합유선방송의 사회문화적 영향은 방송의 소프트웨어적 비중을 부각, 공보처는 90년 5월 종합유선방송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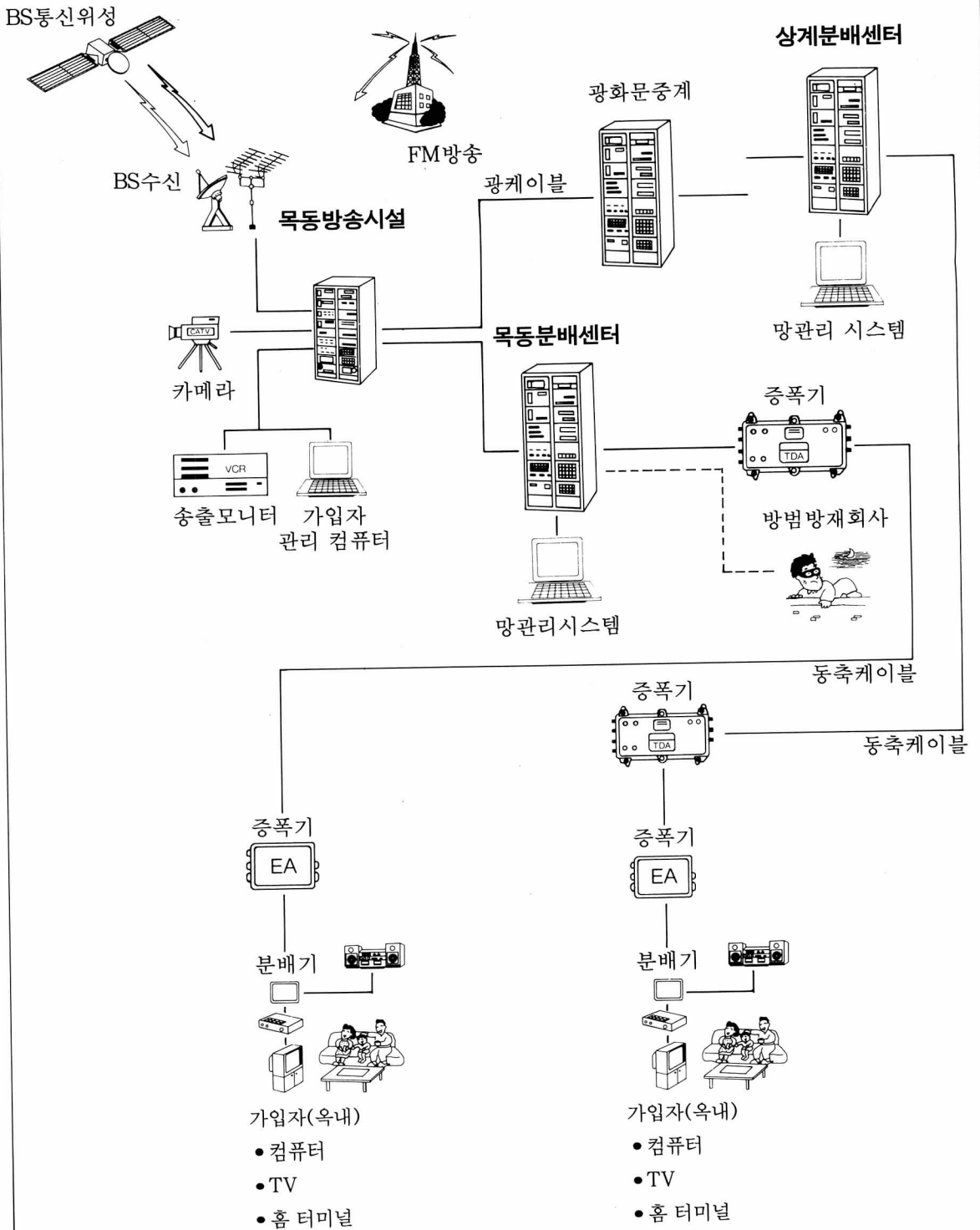
정부를 대신해서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그동안 정보통신분야에서 기술축적과 운영능력을 인정받은 한국통신이 90년 6월 지정되었으며 한국통신은 동년 9월 목동전화국내에 종합유선방송 시범사업단을 발족하고 하드웨어인 시설은 한국통신이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은 공보처가 공급한다는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범방송을 준비해 왔다.

2. 시설공사

시범방송기간동안 무엇보다도 시설의 기술적 측면에서 종합유선방송시스템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문적 다채널 방송정책과 쌍방향 정보통신서비스(디지털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케이블은 광케이블시스템으로 표준화하는 방침이 세워졌다. 하지만 고성능, 고가인 광 케이블은 이 시스템이 본격화되는 96년경에야 비로소 경제성이 있음으로 현재는 광·동축케이블을 혼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1990년 10월에 착공, 91년 3

〈표 1〉 종합유선방송 계통도



월31일에 완공된 종합유선방송계통도는 <표 1>과 같다.

목동방송국에서 부터 목동과 상계동 분배센터까지는 고성능의 광케이블로, 분배센터에서 각 가입자 가정까지는 동축케이블로 연결되었다. 목동 헤드엔드 시설중 주요 방송장비와 전송장비를 비롯 전송로의 증폭기, 가입자 가정에서 사용되는 컨버터등 종합유선방송 도입을 위한 주요장비는 미국에서 들여와 설치되었다.

한국통신은 기자재 구입, 시설공사등 총 1백25억원을 투입하여 방송시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를 위한 쌍방향 통신서비스 장치도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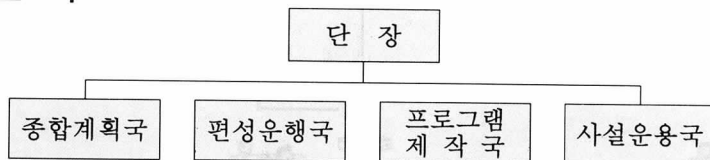
목동 시범방송국 규모와 시범 사업단의 조직은 <표 2>와 같다.

3. 현 황

91년 4월15일 기술 시연회로 개막된 종합유선시범방송은 6월30일까지 약 두달반동

<표 2>

조 직



방송국 규모

스튜디오	조정실	송출모니터실	H·E
44	44	29	33
편집실	컴퓨터실	사무실	기타
22	11	98	75

안 단계별 방영계획에 의한 기술시험을 거쳐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낮 12시에서 오후 5시까지 매일 5시간씩 공급하고 있는 자주방송과 공중파방송을 중계하는 채널별 명칭과 내용은 <표 3>과 같다.

소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정보통신 시범서비스는 생활매체로서 종합유선방송의 국내 정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이다. 이를테면 방범·방재 서비스는 가입자 가정에 케이블로 연결된 홈터미널에 의해 도둑이 들거나 화재가 났을 때 센서에 의해 자동감지되어 헤드엔드를 통해 비상호출, 경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원격검침(Telemetry)은 각 가정의 전기, 수도, 가스계량기 수치를 검침원의 방문없이 디지털 신호로 자동원격 검침되어 관련회사 컴퓨터에 사용량을 전송해주는 서비스이다. 비디오 텍스는 케이블에 연결된

각 가정의 PC 단말기를 통해 각종 생활 및 전문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홈뱅킹, 홈쇼핑등으로 확대, 발전될 전망이 크다.

3개의 케이블 TV 자주방송 채널 프로그램 가운데 자체제작은 일일 15분간의 지역정보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기존 공중파방송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3개채널의 주평균 35시간의 방송시간중 절반인 175시간은 재방을 하고 있다. 영화·연예·스포츠·어린이·교양·지역정보 채널의 7월 기본 편성비율은 <표 4>와 같다.

시범방송 프로그램 공급처는 KBS, MBC, 음반협회로 추진위원회가 결정했으나 7월은 각사의 프로그램 공급준비가 원만치 못해 KBS에 거의 의존했었다. 8월에 들어서 MBC도 시범방송 프로그램 공급처로 활동을 개시했고, 9월에는 아직 소규모이지만 음반협회도 참여하고 있다.

9월 3개의 자주방송채널의 국내 및 외국의 프로그램 할당비율과 각 공급처별 프로그램 참여비율은 <표 5>와 같다.

4. 맺음말

시범방송 개시 약 한달반후인 지난 8월 중순 공보처는 93년부터 유선방송의 본격도입을 위해 '종합유선방송법'을 이미 입안,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언론과 학계

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이 법안이 앞으로 어떻게 수정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본래의 원대한 시범방송 목적인 한국 적 종합유선방송 모델 도출은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상태이다. 89년 방송제도연구위원회의 결과보고에서도 적어도 시범방송은 5년의 기한을 설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다각적 시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평가름 하는 뉴미디어정책을 성급히 결정, 실패한 예는 선진국의 경우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뒤 늦게 종합유선방송을 도입하

는 우리는 적어도 선진국이 범 괄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시범 한 시행착오를 피하기 위해 포 방송 실시가 필요하다.

〈표 3〉 채널별 명칭 및 내용

종 류	구 분	채 널 명	프 로 그 램
TV	자주방송	KEC-35	영화, 연예, 오락
		KEC-37	스포츠, 어린이
		KEC-39	교양, 지역정보
	중계방송	KEC-27	KBS2(채널 7)
		KEC-29	KBS1(채널 9)
		KEC-31	MBC (채널11)
		KEC-33	교육방송(채널13)
FM	중계방송	92.5MHz	KBS-FM1
		93.9MHz	KBS-FM2
		98.5MHz	MBC FM
정보통신서비스		3개채널	방법, 방재 원격 검침, 비디오텍스

〈표 4〉 프로그램 구성 내용(7월분)

(채널명:영화, 연예오락)

구성단위:주간

구 분		시 간	구 성 비				
영	방화	3	본방	1.5	8.6%	본방	4.3%
			재방	1.5		재방	4.3%
화	외화	9	본방	4.5	25.8%	본방	12.9%
			재방	4.5		재방	12.9%
화	계	12	본방	6	34.4%	본방	17.2%
			재방	6		재방	17.2%
드라마(국내)		11	본방	5.5	31.4%	본방	15.7%
			재방	5.5		재방	15.7%
TV미니시리즈		4	본방	2	11.4%	본방	5.7%
			재방	2		재방	5.7%
오락	국내	4	본방	2	11.4%	본방	5.7%
			재방	2		재방	5.7%
	외화	4	본방	2	11.4%	본방	5.7%
			재방	2		재방	5.7%
계		35	본방	17.5%	100%	본방	50%
			재방	17.5%		재방	50%

(채널명:교양, 지역정보)

구성단위:주간

구분		시간		구성비		
교양, 다큐멘터리	18	본방	9	51.4%	본방	25.7%
		재방	9		재방	25.7%
순수예술공연	10	본방	5	28.6%	본방	14.3%
		재방	5		재방	14.3%
생활교양	3.5	본방	1.75	10%	본방	5%
		재방	1.75		재방	5%
지역정보	3.5	본방	1.75	10%	본방	5%
		재방	1.75		재방	5%
계	35	본방	17.5	100%	본방	50%
		재방	17.5		재방	50%

(채널명:스포츠, 어린이)

구성단위:주간

구분		시간		구성비			
스	각종경기 녹화물	15.5	본방	8.5	44.2%	본방	24.2%
			재방	7		재방	20%
포	스포츠교실	4	본방	2	11.4%	본방	5.7%
			재방	2		재방	5.7%
츠	스포츠, 기타	4	본방	2	11.4%	본방	5.7%
			재방	2		재방	5.7%
어	만 화	5.5	본방	2.5	15.8%	본방	7.2%
			재방	3		재방	8.6%
린	어린이 교양물	4	본방	2	11.4%	본방	5.7%
			재방	2		재방	5.7%
이	어린이 오락	2	본방	1	5.7%	본방	2.9%
			재방	1		재방	2.9%
계		35	본방	18	100%	본방	51.4%
			재방	17		재방	48.6%

<표 5> 9월 국내, 외국 프로그램 편성 및 공급처별 비율

	국내	외국	KBS	MBC	음반협회	자체제작
영화, 연예	61.7%	38.3%	88.6%	11.4%		
스포츠, 어린이	60.4%	39.6%	55.3%	40%	4.7%	
교양, 다큐멘터리 지역정보	83.3%	16.7%	63.3%	20%	6.7%	10%